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 출범

지역 교육전문가·학교·학부모 등 20명 위원 구성



담양군은 최근 '2023년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발족식에는 미래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인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교육 분야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에 제정된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미래교육발전협의회는 이날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2023년 교육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군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찾아오는 인문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4개 분야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장학금 신설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정책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이목을 끌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력 ▲교육 관련 정책 제안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우수학교, 교육시설 육성 등에 대한 안건들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역할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가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맞춤형 교육정책으로 찾아오는 담양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승채 기자

영광, 인재육성기금 장학증서 수여식

대학생 64명 등 202명에 1억9900만원 지급



영광군이 올해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영광군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관내 학생 202명에게 장학금 1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여식에 앞서 군은 최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학생으로 '초등학생 27명', '중학생 61명',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64명'을 선발했다.

영광군은 지난 1995년부터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통해 매년 한 차례

씩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누적 286억원을 적립한 가운데 목표액 300억원을 달성하면 '영광교육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영광의 인재들이 큰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길 바란다"며 "지역 인재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한전공대 호남 특혜 아니다... 국가에너지 미래 좌우"

윤병태 나주시장,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출연

"출연금 축소는 본말전도...특별법 따라 적극 지원해야"

정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장인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객관적인 근거를 전제로 소신 발언을 했다.

윤 시장은 지난 9일 광주MBC라디오 생방송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한국전력 적자 경영을 이유로 한 출연금 축소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가적 필요와 여아합의에 의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대학을 법에 따라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대는 호남이 잘 살리고 만든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취약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설립

된 인재 양성대학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출연키로 협약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한전 적자 구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판매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전 적자 규모가 31조원에 이르는데 반해 올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계획 규모는 1588억원 수준"이라며 "대학설립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지원을 한 전 적자 원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시장은 특히 "에너지공대가 수

도권이나 영남권, 충청권에 있었어도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지 생각이 든다"며 대학을 정치적 회생양으로 삼는 현실을 비판했다.

윤 시장은 "정치권과 지자체, 한전이 합심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보다 건설적 방안을 마련해 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여아합의로 제정된)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에너지공대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법 5조에는 산업부 장관과 한전은 대학을 지원·육성한다"고 명시된 점에 대해 "국가적 필요와 결단,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공대는 작년 신입생 107명 중 104명이 재학



중일 만큼 이탈자 없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개교 2년차 인에도 독일 프라운호퍼, 미국 MIT,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에너지공대가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흥 모령마을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마을 벽화 돌담·흙벽·우물 등 생태적 가치 인정 받아

장흥군 안양면 모령마을이 '2023년도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을 말한다.

친환경 인증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 비율 30%이상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은 관산읍 송촌마을 및 옥촌마을, 안양면 신촌마을 및 학송마을이 유기농생태마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안양면 모령마을은 유기농 18.4ha, 무농약 4ha 등 총 22.4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상태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마을 화관 앞 벽화와 마을 돌담 및 흙벽,

그리고 우물 등의 생태환경 가치를 인정 받았다.

앞으로는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발 및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기농업 위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군민 소득향상과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 벼 친환경 재배지 대상 공동방제 추진

1·2회차 공동방제 작업비...개인까지 확대 지원

화순군은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위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벼 친환경 재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벼 친환경 재배지는 총 530ha에 이른다. 이번 추진하는 벼 친환경 재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모를 심은 논을 기준으로 ha당 총 18만 원(1, 2회차 공동방제 작업비)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단지 뿐만 아니라 개인 농가에도 지원한



다. 단, 친환경 인증 미획득 시에는 사업비 지급이 제외된다.

효율적인 공동방제를 위해 벼 친환경 경단지과 개인 농가는 방제수행자를

선정하여 전문업체가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농가 대상 방제수행자는 농업기술센터에 공동방제 신고서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이상고온 등 벼 병해충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방제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 공동방제로 병해충 발생 밀도를 감소시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우리 군의 쌀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 '여름철 해산물 섭취 주의'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홍보

장성군이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 또는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된다. 상처에 바닷물이 닿아도 걸릴 수 있어, 피서철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건강한 사람은 구토, 설사, 복통 등을 겪다 차츰 완화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결핍 환자는 위험할 수 있다.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 괴사 등 패혈성 쇼크 증상을 유발하며 패혈증 발병 시 사망률이 50%로 매우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먼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패류는 5℃ 이하 저온 보관, 85℃ 이상 가열 섭취하고, 손질 시 흐르는 수돗물로 씻는다.

군 관계자는 "읍면 보건지소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전달했다"며 "마을방문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장성군
Jangseong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옐로우시티 장성